



## 남북 의료통합을 위한 준비: 남북의학 용어사전 편찬사업

김영훈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 Efforts to prepare inter-Korea medical consolidation: compilation of a medical dictionary for all of Korea

Young-Hoon Kim, MD

Department of Cardiology, Korea University Anam Hospital, Seoul, Korea

It is known that there are wide disparities in the medical terms and language that medical professionals currently use in South and North Korea. How much chaos can be expected when people will be able to come and go freely unless there is an effort to lessen these gaps? To minimize medical mess in advance and to provide a better environment to strengthen collaborative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should be independent of political beliefs and dynamics, as part of the efforts for inter-Korea medical consolidation, I would like to underscore the need to compile an integrative medical dictionary. For the compilation of such a dictionary, the following process and preparations are suggested. First, there should be a database of medical terminology from North Korea through a search of various types of literature in North Korea, including dictionaries, journals, and textbooks. Second, entry words for an integrative dictionary based on English terms should be included. Third, specialists in medical terminology from the northern side should participate in the editing process and hold discussions with their southern counterparts. Fourth, after the full discussion and consensus has taken place, print and web versions of the dictionary can be published. Furthermore, a dissemination plan should be established to be used widely with both sides. The above strategy should also be supported by not only the medical society in South Korea but also the Korean government.

**Key Words:** North Korea; Medicine; Medical dictionaries; Language

## 남북 의학용어사전 편찬의 필요성과 배경

70년 이상 분단된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언어의 간격은 그 시간만큼이나 벌어져 있다.

**Received:** September 16, 2019 **Accepted:** October 1, 2019

**Corresponding author:** Young-Hoon Kim  
E-mail: yhkmd@korea.ac.kr

©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남과 북의 주민들이 각각 겪고 있는 질병이나 의료 시스템 또한 놀라운 정도로 이질적이다. 남북 간의 산모나 영유아 사망률의 현저한 차이는 의료 간극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남과 북의 의료인들이 쓰고 있는 용어나 일상적 의료 관련 언어는 어떻게? 이 또한 시간이 갈수록 같은 말 다른 뜻, 비슷하나 쓰여지는 상황이나 의미가 상이한 용어가 늘어가고 있다. 남한에서는 영어 표현이 많은 반면 순수 국어 표현은 북한에 흔하다. 이렇게 차이 나는 언어를 이해하고 이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 없이 남과 북의 사람들이 왕래한다면 어떤 혼란이 올까? 의학적으로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 앞에서 서로 다른 뜻의 언어를 주고받으며

진료하는 상황은 과연 기우에 불과할까?

이에 우리는 남북한의 의료 격차를 최소화하고 정치, 이념과 상관없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한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또 보건의료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남북 의학용어집 또는 남북 의학용어사전 편찬 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일상어에서도 나타나지만, 전문용어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남북 간 의학용어의 간극을 줄이는 일은 의료인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 의료 교류 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남북의 의학용어를 통일하는 일이다. 그러나 용어의 통일은 단박에 이루기가 어렵다. 남측의 ‘의학용어집’은 저항과 반발을 겪으면서 표준화를 피하여 왔다. 이제 곧 의학용어집 제6판의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의학 발전에 따라 세부 학회별로 새 용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북측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다듬기 운동의 결과를 수용한 국어사전과 2002년에 출간된 ‘의학대사전(영조일)’을 중심으로 현재의 사용 양상을 가늠하고 있다. 상호교류가 없는 한 정확한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정치체제의 통합이나 통일이 전제되지 않은 시점에서 용어의 표준화나 통일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은 양측의 의학용어를 모아서 서로 비교하여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무엇이 같고 다른지 기술한 뒤에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 선행연구

남북은 양측의 언어 차이를 확인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1]. 남한의 국립국어원과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사이에 여러 차례 국제학술회의를 연 바 있고 겨레말 큰 사전 편찬사업을 위해 직접 만나 논의를 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어문 규범, 고유어 통일, 민족어

유산의 수집과 정리, 방언 연구와 조사 등 일반어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2].

최근 들어 전문용어 통합 정비에 대한 중요성이 학계를 넘어 정치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북 양측이 학술 및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신속히 내딛어야 향후 용어 통합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예산을 줄일 수 있다.

## 1. 남북한의 의학용어 정비

남한의 의학 학술 단체 중에서 학술어 제정 활동을 처음 시작한 학회는 안과학회이다(1949년 7월). 그러나 한국 전쟁 등의 이유로 1960년대까지 의학용어에 대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대한의사협회가 1977년 ‘의학용어집’(1집)을 시작으로 2009년 5집까지 간행하였다. ‘의학용어집’(1집)에는 각 학회로부터 수집한 용어 중 논란이 되지 않을 만한 임상 용어 2만여 개가 선택적으로 수록되었다. 1983년 2집은 4만여 개, 1992년 3집은 13만여 개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2001년 발간된 4집은 11만여 개로 규모가 다소 줄었는데, 이는 의학용어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 용어 세미나의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대한해부학회의 해부학 용어를 대폭 수용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쉬운 고유어로 바꾸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해 오던 용어가 상당수 제외되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다. 2006년에는 논란이 된 용어와 고빈도어, 필수 용어 11,000여 개를 선정하여 ‘필수 의학용어집’을 발간하였다. 또한 2009년에 발간된 5집은 기존 용어도 함께 제시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북한은 1945년 광복 이후로 강력한 한자 폐지와 말다듬기 정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한자어로 된 학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기 위하여 1949년에 ‘학술용어사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60년, 잡지 ‘말과 글’에 따르면 ‘과학원 학술용어사정위원회’ 산하 각 전문 분야 분과위원회의 ‘일반 및 학술용어 통일안’이 완성되었다. 이 분과에는 의학, 약학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약학 부분은 1960년 1호에 146개 용어가, 의학 부문은 1960년 7호에 172개 용어가 실려 있다. 북한의 의학용어 사전으로는 1985년 과학백과사

전출판사가 발간한 ‘6개국 의학용어사전’과 2002년 발간한 ‘의학대사전(영조일)’이 있다[3]. ‘6개국 의학용어사전’은 북한의 말다듬기 정책의 영향 아래에서 편찬된 것이나, ‘의학대사전(영조일)’은 널리 알려진 한자어와 외래어를 사용하도록 한 원칙이 반영되었다.

남한의 경우 의학용어 통일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복수의 용어를 수용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 말다듬기 운동의 결과가 상당 기간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류의 단절로 인해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나 다수의 의료인 출신 탈북자들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 2. 남북 의학용어 비교

남북한의 의학용어를 비교한 연구는 매우 적다. 1992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남북한 의학용어 비교연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된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6개국 의학용어사전’(1985), ‘현대조선말사전’(1981), ‘조선말대사전’(1992) 등에 실린 의학용어를 조사하여 남한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북한의 의학용어가 어떻게 다듬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1996년 대한의사협회에서 간행된 ‘남북한 의학용어’는 남북한의 의학용어를 집대성한 단행본이다. 이에는 약 11,500개의 영어 원어에 대해 남한의 용어와 북한의 용어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다. 이 용어집은 북한에서 나온 국어사전과 통일원 자료실에 있는 여러 의학 교과서의 용어를 뽑아서 수록한 것이어서 대표 용어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4].

2014년에는 북한의 의학용어 발전 과정을 주제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의학용어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의학대사전(영조일)’(2002)에 실린 의학용어를 ‘의학용어집’(5판)과 비교하여 그 용어의 차이점을 밝혔다. 이들 논문에서는 표기법에 의한 차이, 순화 양상의 차이, 외래어 표기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

남북 의학용어에 대한 비교연구는 주로 남한의 의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용어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북측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북한의 의학용어도 고유어 계열과 한자어·외래어 계열이 섞여 있으며 복수로 쓰이는 용어도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료인이나 사전 편찬 전문가와의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발행된 일부 논저, 교과서, 사전 등을 남한 전문가들이 검토한 것이 한계이었다.

## 남북의학용어사전의 방향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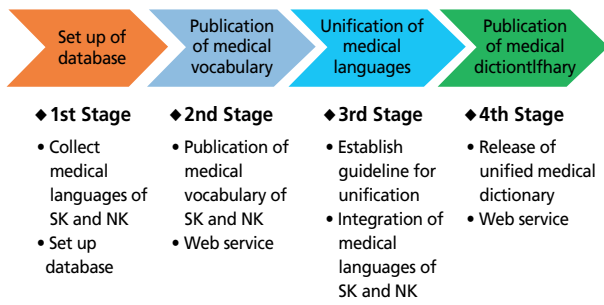
### 1. 추진 배경과 필요성

1966년 ‘남북한의학용어집’이 발간된 후 다시 2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남북의 의학용어가 상당히 변화하였을 것이 자명하다. 북한의 의학용어를 최대한 확보하고 사용 여부를 검증 받아 북한의 의학용어를 현재화, 정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의학용어는 의학자나 의료인만을 위한 용어가 아니다. 의료인과 환자, 정책 담당자, 언론인 등 이용의 범위가 매우 넓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양측이 쓰고 있는 의학용어를 조사, 수집, 정리하여 비교할 수 있는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남북교류가 전면화 되면 북한 보건의료계에 대한 교육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남한의 의료인에게 북한의 의료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남한의 의학교육 과정,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수적인 학습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용어사전이 필요하다. 영어 원어를 기준으로 남한의 용어와 북한의 용어가 나란히 수록된다면 남북의 의료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양측이 합의한 통합안도 제시된다면 교육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다.

남북 보건의료 교류와 통합을 위한 정책개발과 실행에 있어 용어 정비 및 통합은 소통의 디딤돌을 놓는 일로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편찬사업을 위한 남북협력은 일회성, 일방적 지원사업이 아니라 효과적인 의료교류를 위한 장기적인 전망 아래 단계적으로 협력하여 상호 이익을 공유



**Figure 1.** Stages for compilation of medical dictionary for one Korea. SK, South Korea; NK, North Korea.

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동안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용어 정비 사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제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남북의 누구라도 질병의 예방, 질병의 치료, 질병의 관리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 2. 사전 구축 방향과 단계

### 1) 사전의 구축 방향과 성격

#### (1) 남북 보건의료인 · 의학 연구자를 위한 특수 사전

‘남북의학용어사전’은 남북의 의료전문가를 위한 사전이며, 양측 의학용어를 등재하고 이에 대해 기술하는 특수 사전이다. 사전의 대상을 의학용어에 한정할 것인지, 보건 · 의료 및 약료 용어로 확장할 것인지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데, 현 단계에서는 학술적, 과학적 분야로서 의학 용어에 한정한다[5]. 남한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의 제6차 ‘의학용어집’을, 북한의 경우 ‘의학대사전(영조일)’과 2015년 북한의 국가국어사정위원회와 통계정보기술교류사에 의해 공동 개발된 학술 용어집인 ‘거울2.0’에 등재된 의학용어를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 (2) 남북 의학용어의 통합 사전

남북 전문용어 비교와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표준화에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교류 단절로 인해 의학용어 실사 작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문헌을 통한 2차 수집에 그친 상황이라 남북의 의료용어가 얼마나 같고 다른지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 다음 객관적이고 수용 가능한 통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남북의학용어사전

을 편찬하는 것이다. 사전, 용어집, 논저, 교재 등 각종 문헌을 통해 확보한 북한 의학용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수집된 용어의 실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 양측의 의학용어를 비교할 수 있는 용어집을 먼저 출간한다. 이를 토대로 통합 기준을 마련하여 영어 원어를 기준으로 하여 양측이 합의한 용어를 수록하는 사전을 편찬한다.

#### (3) 남북 전문가가 함께 만드는 사전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사업은 남과 북의 의료 전문가, 사전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남한 단독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 의학용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최신 정보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차후에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만나 협의 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4) 의학용어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사전

본 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기존에 수집된 용어를 재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자료까지 포함하여 남북 의학용어를 현재화, 정량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되는 용어와 과거에 쓰였으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용어, 순화되었으나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 등을 의학의 하위 분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사전 표제어를 추출하며 아울러 사전 편집기와 의학용어 검색 및 활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편찬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향후 사전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6].

#### (5) 종이사전과 웹사전

이 사전의 결과물은 종이사전으로 출간하고 웹사전으로도 서비스한다. 사전 개발의 중요한 목표가 북한과의 교류 및 보건의료인 교육 지원에 있으므로 종이사전 출간은 필수적이다. 또한 사전의 데이터를 PC나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웹사전을 개발하고자 한다. 다양한 검색기능과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최적화 할 예정이다.

### 2) 사전 구축 단계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사업은 1단계 남북 의학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2단계 남북의학용어집 발간, 3단계 남북 의학용어 통합안 마련, 4단계 남북의학용어사전 출간 및 보급의 순으로 추진한다(Figure 1).



##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사업의 추진

### 1.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 요건

남북한이 함께 의학용어를 통합하여 사전을 출간하고자 도모하는 일은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겨레의 건강과 안녕을 염원하며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세심하게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기 전에 고려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의학사전 편찬자 간 협력이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양측이 만나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 방법과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 편찬위원회 또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의학자, 전문용어 정비 경험을 가진 연구자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둘째는 행정 지원이다. 남북의 전문가가 한데 어울려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정 업무를 지원해 줄 팀이 있어야 한다. 북한 전문가와 접촉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문제없이 처리할 행정 담당자가 필요하다. 편찬사업을 계획대로 실행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의사결정의 주체가 선임, 유지되어야 이 역시 가능할 것이다.

셋째는 재정 지원이다. 우리 국민이 ‘표준국어대사전’과 같은 규범사전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국가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었다. ‘의학용어집’을 6집 개정판까지 이끌어온 동력은 대한의사협회의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에 있었다. 재원이 부족한 탓에 사업 목표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낮은 품질의 결과물을 내놓아서 안 될 것이다. 또한 북측 참여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 2. 추진 전략

위와 같은 문제들이 선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첫째, 최적의 진용을 갖춘 컨트롤타워를 조직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사업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전 편찬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 실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매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를 위

촉하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과 교류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북측 의학자, 사전학자와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다. 사전 편찬사업을 단계별로 구성하고 세부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확하고 자세한 지침과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육하고 훈련하여 전체 참여자가 일관되고 통일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원활한 사업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다. 남북의 의학용어 전문가, 사전 편찬자들이 정기적으로 편찬사업과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여 소통하고 실제 작업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끈끈한 팀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편찬사업 진행에 따른 사업 보고회를 열어 사업 성과와 진척 사항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편찬사업에 대해 남북이 함께 공유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홍보한다.

## 기대효과

‘남북의학용어사전’ 편찬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전문용어 분야 최초로 남북이 함께 사전을 편찬하여 남북 의학계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나아가 우리 한반도 전체 겨레에 내놓게 된다. 남북 간 의학 분야에서 거둔 성과물은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향후 한반도 통합과 통일을 향한 물길을 넓히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예상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집과 사전은 북한에도 배포하여 북한의 보건의료인, 연구자와 학생들의 학습을 도울 것이다. 또한 웹으로도 서비스함으로써 의학도 및 보건·의료인이 쉽게 의학용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남북의학용어사전’은 언론 기관이나 행정 당국이 남북의 의학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의료 분야는 대표적인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론사와 정부기관이 향후 펼쳐질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대

에 가장 적합한 의학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남북의학용어사전은 그 자체가 남북 의학 연구자의 연구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관련 연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이고 분화되어 있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남북의학용어사전’은 전문용어로서 의학용어를 대상으로 집필한 사전이라는 점에서 전문 용어학 및 사전학의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용어 선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용어 비교 방법론, 용어사전 편찬 방법론 등은 학계의 관심사가 된다. 나아가 타 분야 전문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남북 전문용어 사전 편찬, 통일을 대비한 용어 표준화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찾아보기말:** 북한; 의료; 의학용어사전; 언어

## ORCID

Young-Hoon Kim, <https://orcid.org/0000-0002-4254-647X>

##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 References

1. Kwon JI. Necessity and direction of terminology standardization for commun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Linguist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eoul: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8. p.11-25.
2. Kim WO, Kil HK, Kang JW, Kim KH. Comparison of anesthesiology related terminology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Korean J Anesthesiol 1996;30:31-40.
3. Kim JH. Medical terminology of North Korea. In: Korean Medical Association. Sourcebook of the 33rd Round-table discussion about medical terminology. Seoul: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14. p.2-23.
4. Kim HS. Language differ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linguistic point of view. J Korean Med Assoc 1993;36:580-584.
5. Seo CM. On the refining of technical terms in North Korea. Korean J Med Educ 1996;8:33-52.
6. Ji JG. Research status and problems of medical terminology purification. Saegugeosaenghwal 2011;21:105-121.